

# 서울교육감 선거서 이례적 협약... “흑색선전 않겠다”

진보 정근식·보수 윤호상 후보  
상호 비방 자제·공정 경쟁 약속  
정책·비전 중심 선거 강조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근식 후보 캠프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와 서울 좋은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선언문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비방의 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앞에서 교육의 미래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후보 등록 이후 서울

시교육감 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정 후보와 윤 후보를 비롯해 진보·보수 진

영 후보들이 함께 등록하면서 단일화 이후에도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대립 구도가 뚜렷했던 서울시교육감 선

거에서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선거를 공동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후보는 우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 ▲AI·디지털 시대의 미래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원과 학생인권의 조화 ▲돌봄과 방과후학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을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비방, 익명 SNS를 통한 악의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비추이는 선거”라며 “경쟁하되 품격을 지키고 비판하되 사실과 정책에 근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도 약속했다.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이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서울교육의

통합과 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 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중독 예방, 안전한 돌봄 체계, 통학 안전,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두고 “진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이 더 책임지고 더 잘 가르칠 때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학생의 배움도 넓어진다”며 기초학력 책임교육, 방과후학교 내실화, 진로·진학상담 강화, 돌봄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입장과 정책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정당당한 경쟁, 상호 존중, 깨끗한 선거문화, 학생들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만큼은 함께 지키겠다”며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총장 65% “서울대 10개 만들기, 도움 안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 250만명 돌파

사총협 ‘한국의 대학 총장’ 조사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 시급 현안  
사립대 별도 지원 필요 97.7%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거점 국립대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보다 사립대 현실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총장들의 관심은 등록금 규제 완화와 AI 전환 투자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됐다.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5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사립

대 총장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41.4%)와 ‘그렇지 않다’(24.1%)를 합한 부정 응답이 65.5%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11.5%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0%였다.

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고, 부정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81.6%가 정부 재정지원이 국립대 중심이라고 답했고, 97.7%는 국립대와 별도로 사립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꼽은 대학 현안 1순위

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였다. 이어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전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대응이 핵심으로 꼽혔다. ‘AI 활용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이 95.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고,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95.0%)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행정 및 학사 조직 개편(94.2%)이 뒤를 이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까지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연계해 제한하는 방식은 폐지돼야 한다”며 “평균등록금 이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평균등록금 이상 대학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개막주간 마켓 매출 12억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20일 만에 관람객 25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숲·성수동 일대 생활인구와 카드 소비까지 함께 증가하며 ‘체류형 도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이날 기준 누적 관람객 25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의 생활인구·체류인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람객 유입이 지역 체류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박람회 기간 서울숲 일대 일평균 생활인구는 약 4만2300명으로 직전 4월보다 20.4% 증가했다. 특히 주중 생활인구 증가율은 25.1%로, 특정 주말에만 인파가 몰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는 축제 양상을 보였다. /이현진 기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잔디마당 휴게쉼터(서울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시점은 개막일인 지난 1일 오후 2시였다. 당시 서울숲 일대에는 내국인 7만2391명, 외국인 3576명 등 총 7만6000명이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관람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휴게시설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정원마켓을 운영하고 서울숲 내 3개 푸드트럭 존을 배치했다. 개막 후 10일간 푸드트럭과 마켓 매출은 약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150억 투입

기반시설 개선 등 3개 분야

경기도가 중소 제조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 도내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해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복지 개선 ▲소방안전 개선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원이며, 총 사업비 기준 7억 원 이하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70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4000만원이며, 기숙사 신축 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주차장과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을 개·보수하

는 사업으로, 올해 17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6000만원이다.

‘소방안전 개선’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추진된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 소기업 범위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과 천장 등 작업공간, 작업대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575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며, 올해 48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39

5월 21일 (목)  
음력 : 4월 5일

수도권 날씨  
16~20°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 연천 14/20
- 동두천 14/21
- 가평 13/20
- 양평 14/21
- 용인 15/20
- 평택 14/20
- 수원 15/20
- 인천 15/21
- 파주 14/20
- 백령도 15/20
- 서울 16/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푸틴 측근 “트럼프 특사, 조만간 러시아 방문할 것”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내달 8일 울산항 도착 /사진 뉴스시스

▲EU, 美 무역협정 이행안 최종 승인...관세 갈등 일단락  
▲시진핑 “중·러, 정치적 신뢰 심화...더 빠른 발전의 새 단계로”

▲트럼프 “이란 공습 보류 내주초까지”...중재국들 “협상에 진전 없어”  
▲한국인 2명 탄 가자 구호선 또 이스라엘에 나포...3명 구금